“공영개발 취소하라”…여수 소제지구 택지개발 주민 반발

“현실성 떨어진 터무니 없는 보상가 제시”…여수시청 앞 집회

소호동 41만 7654㎡ 부지에 주거용지 조성…25% 보상 완료

여수시가 공영개발로 추진 중인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소제지구도시개발 추진위원회와 주민 80여명은 지난 5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는 공영개발을 취소하고 주민에게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소제지구 주민들은 “공공방식의 강제수용은 주민들이 정든 여수를 떠나 객지를 떠돌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며 “강제수용을 한다면 소제지구 주민들은 절대 사업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수시는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6월 전남도와 여수시,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국공유지 등 536필지 가운데 25%인 106필지가 보상이 완료됐다.

이처럼 여수시 보상이 진행 중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수시가 현실성이 떨어진 터무니없는 감정 평가액을 제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순빈 소제지구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가 제안한 감정 평가액(평당 170~180만원)으로는 지역내 오래된 아파트 한 채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수시는 사실상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대표적인 갑질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개인사정상 부득이 보상금을 수령한 일부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 주민과 지주(여수·타지역 포함)들이 뜻을 같이 한만큼 지난 2008년 돌산회타운 사례처럼 다시는 여수시 공영개발 강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강경대응을 펼쳐 가겠다 ”고 강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토지의 위치·지목에 따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영 목적의 사업이라 최대한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소제지구는 지난 1974년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배후부지로 첫 지정·고시한 후 지금까지 개발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된 주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2017년 9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75% 주민·지주들이 동의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요건 충족) 자체 공동개발(지주) 결정을 내렸지만 여수시는 본래 계획대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주민들은 1974년 당시 주요 생계 수단인 가축 축사 등을 강제 철거당하면서도 지난 44년 동안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민들은 지난해 여수시를 상대로 ‘여수산단 배후도시 해제’와 ‘주민 지주 공동 개발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여수시가 승소해 공영개발이 추진돼 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보상물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상을 마치고 택지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소호동 41만 7654㎡에 이르는 소제지구는 소호 요트장과 디오션리조트 사이에 있는 마을(소제·음달)로 지난 1974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 고시됐다. 이후 1991년 12월 18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 지난 24년 동안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여수시가 수차례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했다가 무산돼 여수시가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1324억원에 달하며 소제마을(41만8000㎡) 부지에 주거시설용지 20만640㎡(48%), 상업시설용지 1만2540㎡(3%),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로 20만4820㎡(49%)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소제지구도시개발 추진위원회와 주민 80여명이 지난 5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영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 지방자치경영대상 열린 혁신부문 대상

사랑방좌담·열린 청원 등 호평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상

정부혁신평가선 총리상 수상

민선 7기 권오봉〈사진〉 여수시장의 공약이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열린 혁신부문)과 행자부 주관 정부혁신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등 최근 잇따른 시정 성과를 거두면서 민선 7기 시민행복도시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2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여수시가 열린 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전국 지자체의 활동성과를 매년 전문 평가하는 기관으로, 올해 역시 열린혁신과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까다로운 심사를 펼쳤다.

여수시는 미래발전위원회 운영과 사랑방좌담회 도입, 열린 청원제도 시행 등 민선 7기 주요 시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유치(준비),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문 등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여기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은 것도 혁신 성과로 인정받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권오봉 여수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도시재생 등 7개 분야에 대한 민선7기 공약 우수사례를 공모한 바 있다.

147개 지자체 343개 사례가 접수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76개 사례가 지난달 25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PT 심사로 최종 경합을 벌였다. 여수시는 ‘음악과 문화, 축제가 만나는 두근두근 여수’를 주제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 도전해 시 단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2차 PT에서는 나병곤 여수시 기획예산과장이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부문을 세 가지 전문 테마로 나눠 발표하면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첫 번째 테마로 청춘과 도전을 주제로 한 벚꽃소풍 시즌 3와 HOT ROAD 페스티벌, 여문썸머 樂 페스티벌, 흥국거리 패션쇼 등 청년거리문화한마당 행사를 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낭만과 음악을 두 번째 테마로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우리동네 청춘버스킹 등을 발표했다.

세 번째 테마인 역사와 보전을 주제로 지역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 혁신 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권개선,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로 평가했다.

중앙부처 6곳과 지자체 6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마스터즈수영대회 참가자·조직위에 무료 시티투어 제공

여수시는 9일부터 11일까지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열리는 광주세계마스터즈 수영대회 오픈워터 대회 참가자와 조직위원회에 무료 시티투어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탑승객은 엑스포 역을 출발해 오동도, 진남관, 웅천친수공원과 예술의 섬 장도, 수산시장을 경유하며 여수의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둘러본다.

조직위원회에서 발급한 카드만 있으면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오픈 워터 경기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오픈 워터 경기장에서 세계마스터즈 수영대회 오픈워터대회가 열린다.

대회 종목은 남녀 3㎞며, 25세부터 89세까지 5세 단위로 구분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17경기를 진행한다.

대회를 앞두고 시는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와 적조·해파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 주변 차량 소통 대책을 추진하고, 음식점 바가지요금 근절과 식중독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영 동호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스터즈 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며 “아름다운 여수를 조금이나마 알리기 위해 FINA 관계자, 선수, 미디어에 무료 시티투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관광 홍보용 제작 웹드라마 ‘동백’

서울웹페스트어워즈 드라마상 후보 선정

여수시가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해 제작한 웹드라마 ‘동백’〈포스터〉이 ‘국제웹영화제’ 수상 후보에 올랐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가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동백’이 ‘2019 서울웹페스트 어워즈’ 베스트 드라마상 후보로 선정돼 40개 작품과 경쟁한다. 남자주인공으로 출연한 양준(25)도 베스트 라이징 스타상 부문에서 순위를 다툰다.

‘2019 서울웹페스트 어워즈’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웹영화제다. 올해는 세계 27개국에서 27개 부문 277개 작품을 출품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서울파크하비오 호텔에서 시상한다. 여수시 관광과는 지난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웹 드라마 ‘동백’을 기획·제작했다.

‘동백’은 50분 분량으로 여순사건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수 관광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지역 홍보 효과가 높았다.

유튜브 (힐링여수야 채널)에서 조회 수 16만 건 이상을 기록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상욱 여수시 관광마케팅 팀장은 “여수 관광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을 웹드라마로 풀어낸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끈 것 같다”며 “앞으로도 여수의 숨은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웹드라마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추천 업종”

1 높은전용률 확트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2 볼링장,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